



준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기대'

부산 동명대학교(이사장 강정남)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해, 오는 11월 23일부터 2010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부산경남지역 4년제 정규대학에서 불교관련 학과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명대는 조계종립 동국대를 비롯한 위덕대, 금강대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번째로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됐다. 하지만 불교관련학과의 경우 종합대학교에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사립대학인 동명대의 이번 불교문화학과 신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진건 여행, 해외 구법순례 등을 통해 치열한 구도수행에 나선 선인들의 자취를 따라 나서기로 해, 유익함과 즐거움을 더해 해 입학에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불교문화학과 졸업생은 재학 중 복수전공을 통해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영학과와 불교문화학과, 혹은 컴퓨터공학과와 불교문화학과 등과 같이 학생이 원하는 별도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소요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학교 측은 총 소요 경비의 50%는 학교단위 기금조성을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생 개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책임을 지 부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흔히 부산을 일컬어 '대한민국 불교 수도'라고 부를 만큼 시민들의 불심 또한 깊다고 한다. 불교 교세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2010년 3월이면 불교문화학과와 첫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청년불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가 초심을 잊지 않고 여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3면

## 교육원장 현응, 호법부장 덕문

### 조계종 33대 집행부 인선 본격화... 182회 중회 동의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중앙종회의원 현응 스님, 호법부장에 덕문 스님이 선출되는 등 제33대 집행부 인선이 본격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신)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33대 집행부 출범과 관련된 인사안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직 중회의원 80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회에서 보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은 최근 여여하게 임기를 성료하신 지관 스님과 그 바탕으로 중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신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아름다운 총무이상의 순간을 함께 했다"며 "안정적인 집행부 이양이 이뤄진 만큼 중앙종회가 튼튼한 다리로 연결고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교육원장 선출 △법규위원회 위원 선출 △법제위원회 위원 선출 등의 △대중사법계 특별전행 동과 △호법부장 임명 등의 등 인사안건과 △중앙종무기구 중정감사 △2010년 예산안 승인 △불교방송 선임 공개 추곡 결의 △승법 제 개



교육원장 현응 스님



호법부장 덕문 스님

정 △종무보고 및 분과위, 특위 보고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교육원장에는 현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제2안건으로 상정된 법규위원회는 지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3안건으로 상정된 법규위원회 위원에 관한 안건과 4안건으로 상정된 덕문 스님, 대승불교승가회와 선우도량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립공립위원회 위원, 불교신문사 사장, 해인사 주지 등을 지냈다.

교육원장에 선출된 현응 스님은

1971년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강원을 졸업한 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 총무원 기획실장, 12·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학과, 대승불교승가회와 선우도량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립공립위원회 위원, 불교신문사 사장, 해인사 주지 등을 지냈다.

호법부장에 선출된 덕문 스님은 자승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와 1990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과장과 상임감찰, 화엄사 기획국장,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은사는 종열 스님이며, 본사는 구례 화엄사다.

한편, 제182회 중앙종회는 제6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종정 감사의 건으로 인해 휴회했으며 재개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로 예고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ews.com

## 조계종 210억·진각종 147억 예산

### 조계종 6.5% 증액... 진각종 9억여원 증액

2010년도 조계종 예산은 약 210억원, 진각종 예산은 147억 여원이 각각 편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9일 총무원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210억 3743만 원을 편성하고 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에 비해 6.5% 증액된 수준으로 총무원은 7.8%, 교육원은 1.6% 증액됐으며 포교원은 포교전진대회 집행비 등을 감안해 13.5% 인상됐다. 총무원 내에서는 총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삭감돼 차기 집행부 추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중앙종회는 3.2%, 호계원은 3.2%, 종정기관은 0.7%로 각각 증액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석 스님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종책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편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예산안은 11월 9일 재개회 되는 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진각종 통리원(총리원장 혜정 정사)은 2010년도 예산으로 147억 3100만원을 확정했다. 진각종 총의회의장 성초 정사는 10월 22일 제365회 정기총회 ·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인 137억 9900만원보다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편성 분야는 통리원 135억 2000만원, 교육원 6억 7000만원, 제시 5억 41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인축 편성됐다.

총의회의장 성초 정사는 개회 인사말을 통해 "진각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한 서원과 정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캐나다서 시연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 신촌 봉원사 주지)는 캐나다 현충일인 11월 11일 'Remembrance Day'를 맞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영산재재를 봉행한다.

이번 캐나다 현충일 영산재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500여 캐나다 유엔군의 전사자를 기리고 양국 간 상호우호 관계 증진과 영산재의 우

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는 지난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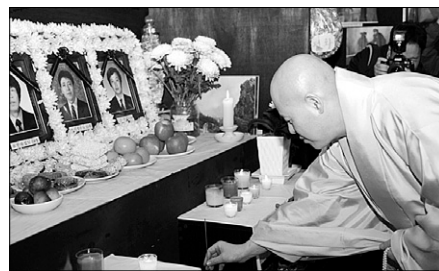
이날 캐나다 영산재재는 한국전쟁 통문화 홍보차원에서 문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캐나다한국무용연구회 등에서 후원한다.

노덕현 기자

## "소통 화합의 자비행" 천명

### 자승 스님 용산참사 현장 찾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첫 대외 행보로 이웃종교 복지시설과 용산참사 현장을 찾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자비행을 펼칠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5일 용산참사 현장 희생자 빈소에서 분향하는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은 11월 5일 오후 3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

하고, 단식기도중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신부와 문정현 신부 등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 해결 기원 발원문'을 통해 "용산참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다"며 "하루 속히 이 대립과 갈등이 원만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체 모두가 화합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용산참사 방문에 앞서 자승 스님은 노숙자 의료시설인 요셉의원(원장 이문주 신부)과 노숙자 쉼터 보현의집(원장 지기)도 방문해 노숙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용산참사 현장 및 복지시설 방문에는 기획실장 장석 스님과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등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 동안거 결계 포살

### 조계종 12월 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일 2009년 동안거 대결계 및 포살 시행을 공고했다. 결계 신고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접수 가능하다.(공할주지는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접수 서식은 조계종 소속 사찰 및 교구본사 발송 안내 책자,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재된다. 결계 신고를 한 스님은 각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예외 사항 공고문 참조)

결계 신고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는 스님은 △비구·비구니계 수지 불가 △승가교시 응시자격 박탈 △법계 품수 및 승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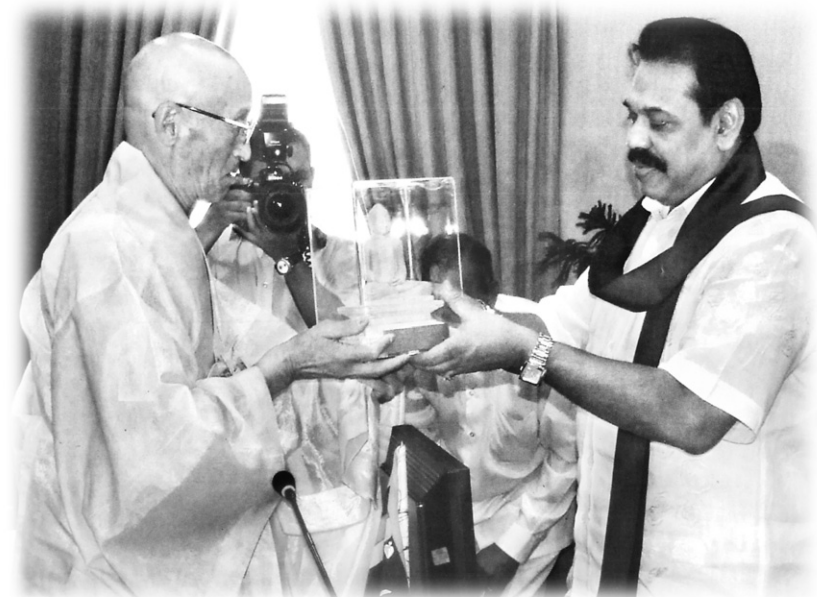


# 재단법인 설립 축하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스 조인식



## 세계평화·남북통일·국태민안·G20 성공개최 기원 대법회

### 2009년 음력 9월 27일 (양력 11월 13일)



###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다사다망 한 가운데에도 하시는 불사 원만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여래종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재단법인 설립과 종정 큰스님의 세계 불교 통합 염원이 담긴 스리랑카 국제불교도총연맹 법왕청 조성 조인식을 스리랑카 대사 및 내외귀빈을 모시고 봉축 대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봉축 대법회에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9년 음 9월 27일 (양 11월 13일) 오전 11시
- 장 소 : 옥천명가(☎043-733-774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94
- 주 최 : 한국불교여래종 · 후 원 : 여래종 종도회

### 세계평화·남북통일·국태민안·G20 성공개최

- 청중 45주년 대법회 ■
- 재단법인 설립 축하 대법회 ■
- 국제불교도총연맹 법왕청 조성 한국 및 스리랑카 대표 조인식 ■

초청인 : 증명 종정 인왕 큰스님  
총무원장 명안 큰스님  
종문도회장 인관 큰스님  
스리랑카대사

- ※ 참석 여부를 전화 주시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031-734-3205)
-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 ※ 화환을 대신해서 축의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접수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양미 1구좌 5만원 2구좌 10만원 접수합니다.

여래종 창종 45주년 종단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 (043)731-2261 Fax (043)731-6453  
☎ (031)734-3205 Fax (031)735-3374